

2024
Vol. 1
통권 제19호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SEJONG — INSIGHT

세종인사이트



SEJONG RESEARCH INSTITUTE

2024
Vol. 1



CONTENTS

- 01 세종시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융복합 방안 | 남 영 식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02 이런 ‘충청U대회’ 폐막식 어떨까요? | 이 재 민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03 세종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 이 자 은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 04 세종시 지역특화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 : 복숭아 산업을 중심으로 | 서 환 석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 05 세종시민과 만들어 갈 세종호수공원·중앙공원 | 서 자 유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I. 연구 배경 및 목적

● 메타버스란?

- 가공 ·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디지털 세계, 초월 세계를 의미함
- 5G와 가상기술(AR · VR)을 기반으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가상융합공간으로 떠오르면서 온라인 경험이 현실세계의 경제 · 사회 · 문화 활동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확장됨

● 세종시 지역산업 융복합 방안 제시

- 세종시는 그동안 국가행정의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강화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및 육성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향후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굴된 주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주요 기술로 간주되는 메타버스 기반의 세종시 지역산업 융복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II. 분야별 메타버스 활용방안²⁾

● 개발 및 개선 분야 메타버스 활용 방향

- (활용 목적) 메타버스를 활용한 개발 및 개선 관리를 통해 제품 ·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적용 대상) 기존 제품 · 서비스 개선, 신규 제품 ·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
- (기대 효과) 제품 · 서비스 개선 비용 감소, 제품 · 서비스 질 향상, 신규 제품 · 서비스 개발 성공률 증가 등

● 콘텐츠 및 마케팅 분야 메타버스 활용 방향

- (활용 목적)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 및 마케팅 관리를 통해 보다 개선된 비즈니스 경험 제공
- (적용 대상) 문화, 예술, 여가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 가능한 콘텐츠 및 이에 기반한 마케팅이 필요한 제품 · 서비스
- (기대 효과) 콘텐츠 비즈니스 시장 확대, 마케팅 비용 감소, 마케팅 범위 확대 등

● 업무 및 교육 분야 메타버스 활용 방향

- (활용 목적) 메타버스를 활용한 업무 및 교육 관리를 통해 비즈니스 효율성 향상
- (적용 대상) 산업 관련 비즈니스 관계자

- (기대 효과) 유연한 업무 환경(가상공간 등) 제공에 따른 업무 대응 역량 개선(비대면 근무 효율성 제고, 원격지 인재 채용 등), 업무 추진 관련 비용 감소, 직무 교육 범위 확대, 직무 교육 비용 감소, 관계자 업무수행 역량 강화 등

III. 세종시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융복합 방안³⁾

● 개발 및 개선 분야 메타버스 융복합 방안

-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자율주행과 관련된 실증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자율주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여 실증주행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 데이터를 공유하여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 ·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음
-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구축
 -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의미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기존의 오프라인 의료시스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목적의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음

● 콘텐츠 및 마케팅 분야 메타버스 융복합 방안

- 문화 · 관광 · 레저 플랫폼 구축
 - 세종시 문화 · 관광 · 레저 관련 주요 명소를 구현한 가상공간을 의미하며, 해당 공간에서 사이버 방문객들이 세종시를 방문하여 문화 · 관광 · 레저 활동을 체험하고 즐기면서, 세종시 방문 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케팅 플랫폼 구축
 - 세종시 지역 기업의 제품 · 서비스 관련 마케팅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의미하며, 이를 기반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상시 전시, 메타버스 산업 박람회 개최, 마케팅 및 홍보가 필요한 특정 제품 ·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메타버스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이 글은 2022년 수행한 정책과제 <세종시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융복합 방안>에 기반하고 있음

2), 3)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참조

세종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융복합 방안

● 업무 및 교육 분야 메타버스 융복합 방안

- 메타캠퍼스 플랫폼 구축
 - 세종시 지역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의미하며, 이를 활용하여 기존보다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기업 수요 반영한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지역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특화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인력양성 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메타체험관 인프라 구축
 - 초실감형 메타버스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시설을 의미하며, 이를 활용하여 세종시 특화산업과 연계된 메타버스 서비스의 이용자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과정에서 세종시 메타버스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충청권 내 주요 기관(과학기술 관련 국책연구기관(ETRI 등), 카이스트 GCC 등)과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모색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메타버스 기반 산업 융복합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진흥 거점기관 육성 필요
 - 메타버스 기반 산업 융복합은 해당 산업의 발전 및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메타버스 활용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산업 중심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세종시는 세종테크노파크가 지역과학기술진흥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팀 단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어 관련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충청권에서도 광역지자체별로 지역별 테크노파크 외에 대전과학산업진흥원(대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충북) 등의 지역과학기술진흥 거점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종시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과학기술진흥 거점기관 육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세종시가 현재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도시 규모, 인구 등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과학기술진흥을 전담하는 거점기관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음
 - 하지만 세종시가 과학기술 기반의 특화산업 고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미래전략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종형 과학기술진흥 거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V. 정책제언

● 세종시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융복합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

- 메타버스 활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명확한 목적성을 반영한 사업 구성 필요
 -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인프라 조성 과정에서 실감형 체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용자들의 니즈가 반영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지 해당 플랫폼 및 인프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이를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및 인프라에 대한 수요자를 파악하고, 해당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조사한 다음,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현실적 관점에서 명확한 목적성 기반의 메타버스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기추진 중인 메타버스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효율적인 메타버스 산업생태계 조성을 고려한 메타버스 융복합 방안 모색 필요
 - 세종시 메타버스 산업생태계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서는 3T(Technology, Talent, Tolerance culture) 관점에서 균형 잡힌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의 산업적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메타버스 활용 비즈니스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의 문화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I. 충청권이 함께하는 '2027 충청 세계U대회'의 여정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종합경기대회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관하고, 150여 개국 1만 50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국제단위의 스포츠 이벤트라 할 수 있음

2027년 대회의 개최지 확정

- 2027년 대회의 개최지로서 충청권 4개의 시·도가 유치신청 도시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는 도시 간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유치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임
- 2027년 충청권의 대회는 'We are the one, 하나 된 충청'이라는 지향점에, '함께라는 위대함', '조화의 아름다움', '성공개최의 디딤돌', '성장을 위한 씨앗' 등 네 가지의 비전을 수립하였음

새로운 폐막식의 대안공간 세종중앙공원

- 세종시는 폐막식과 선수촌 숙소를 운영하면서 선수단 돌봄을 담당하고자 했으나, 당초 예정된 종합운동장의 건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 분석에서 기준점에 모자라 지연이 되고 있어 새로운 폐막식을 위한 공간 모색이 필요한 상태임
-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에서는 폐막식의 새로운 대안공간으로서 현재 건립 중인 세종중앙공원을 주목하고 있음
- 세종중앙공원은 세종시 금강 변 장남 평야 일원에 조성되고 있으며, 지역 중앙에 녹지공간을 활용한 여가·문화공간임
- 이 연구는 세종시가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공동개최지로 선정되었고, 폐막식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종합운동장 건립의 지연이 확실시되는 상황적 맥락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음
-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폐막식의 새로운 대안공간으로서 세종중앙공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 공간을 활용한 폐막식 콘텐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연구임

II. 호수공원 활용 사례 검토

2011년 전국체전 개·폐회식

- 2011년 고양에서는 일산 호수공원을 공간적 배경으로 전국체전의 개·폐회식을 진행한 사례가 있음
- 2011년 전국체전에서의 '개회식'은 사전 행사(대합창), 도미노쇼, 공식행사, 멀티크로스 오버 쇼(경기 미래비전 감상·YB밴드 축하공연·피날레)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함
- '폐막식'은 퍼레이드(댄스 스포츠 공연·차기 개최지 공연), 공식행사, 축하공연(인기가수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음

2011년 전국체전 사례분석

- 사례분석을 통해 호수공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스포츠 이벤트 이미지의 연출 등 기존 생활 문화공간과 조화로우며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함
- 더욱이 기존의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참가자만의 '단한' 행사가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행사의 기획이 필요하다는 점과 내실 있는 행사 진행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의 선순환 체계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음

III. 축제·이벤트 공간으로서 세종중앙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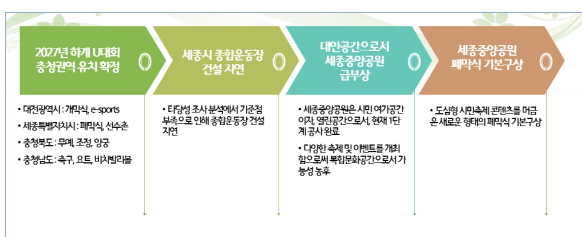
세종중앙공원의 현황

- 세종중앙공원의 면적은 1,406,561㎡이며, 현재는 1단계 공사를 통해 521,827㎡이 개방되었고, 세부 공간별 면적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1] 세종중앙공원 조성 현황

구분	면적(㎡)	비율(%)
장남담광장	40,696	7.8
도시축제마당	78,736	15.1
어울림정원	61,928	11.9
가족여가숲	44,673	8.6
가족예술숲	103,851	19.9
복합체육시설	141,125	27.0
기타	50,818	9.7
합계	521,827	

[그림 1] 연구의 과정과 흐름



1) 이 글은 2024년 수행한 현안과제 <2027 '충청 세계U대회' 폐막식 개최를 위한 세종중앙공원 기본구상>의 내용에 따름

이런 ‘충청U대회’ 폐막식 어떨까요?

2023년 세종축제에서의 세종중앙공원

- 2023년 세종축제에서의 세종중앙공원은 도시축제 마당 잔디광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하여 활용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이외에도 어울림 정원 · 입구 광장 · 메타세콰이어 숲 등의 공간을 활용하였음
- 2023년 세종축제에서의 세종중앙공원은 대규모 공간이 필요한 액티비티 콘텐츠, 무대 설치를 통한 공연 콘텐츠, 기존 나무 및 조경을 활용한 콘텐츠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그림 2] 세종축제에서의 세종중앙공원 공간 구성



세종 보헤미안 락 페스티벌에서의 세종중앙공원

- 세종 보헤미안 락 페스티벌은 국내 대표 락 장르의 가수 12팀이 출연하여 진행되는 공연 콘텐츠로서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 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는 큰 규모의 행사임
- 세종 보헤미안 락 페스티벌은 국내 대표 락 장르의 가수 12팀이 출연하여 진행되는 공연 콘텐츠로서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 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는 큰 규모의 행사임
- 세종보헤미안락페스티벌의 공간은 편의구역, 관람 구역, 무대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관람 구역에는 펜스로 구획하여 유료 운영을 진행하였음

IV. 이런 충청U대회 폐막식 어떨까요?

왜 세종중앙공원인가?

- 세종중앙공원은 세종시 대표 시민여가공간으로서, 현재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훌륭한 대안공간이며, 최근 개최한 다양한 축제 · 이벤트를 통해 축제 공간으로의 가능성도 보여줌
- 과거 전통적인 시기에서는 개회식 · 폐막식과 같은 이벤트를 ‘스타디움’과 같은 공간에서 개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일상 공간이자 열린 공간과 같은 속성을 가진 공간에서 개최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 중앙공원에서의 U대회 폐막식은 매우 적절함

충청U대회 폐막식을 통해 꾸는 도시축제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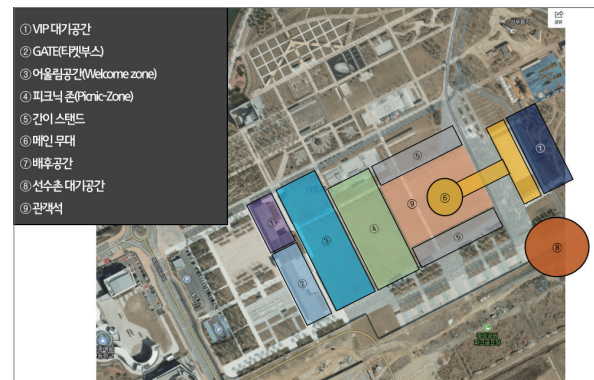
[그림 3] 도시형 축제로서 충청U대회 폐막식 제안



- 2027년 충청U대회 폐막식의 비전을 ‘도시축제의 꿈, 하계U대회’로 설정하고, 시민 축제형 스포츠 이벤트를 제안함
- 이를 통해 하나의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민이 함께하는 도시축제로서의 모습을 꿈꿀 수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공간별 특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K-culture 연계전략, 주변 지역자원 연계 전략 등으로 고찰하였음

세종중앙공원 공간 활용 전략

[그림 4] 세종중앙공원 공간 활용 전략



- 충청U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공간활용 전략으로 기존 중앙공원을 VIP 대기공간 · GATE(티켓부스) · 어울림공간 · 메인 무대 등으로 구성함

V. 제언

충청U대회 폐막식의 세종중앙공원에서의 개최를 위해

- 이에 관한 정치한 로드맵 수립 · 2026 국제정원박람회와의 긴밀한 연계 협력 필요 · 지속적인 축제 개최를 통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강화 · 우천에 대비한 프로그램 기획안 등을 제언하였음



I.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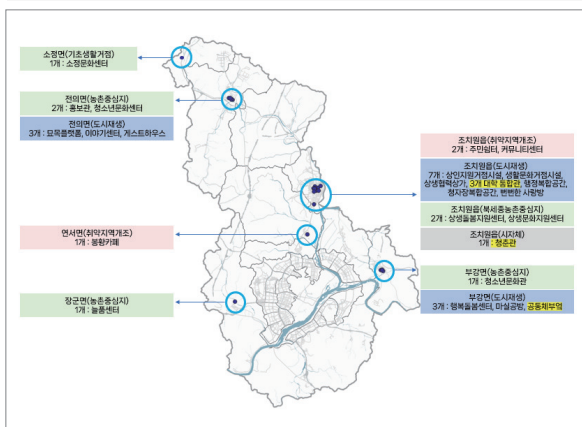
● 세종시 주민공동이용시설

- 세종시는 2015년 부강면을 시작으로 조치원읍과 5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하 농촌중심지사업),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이하 기초생활거점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취약지역 개조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함
- 이를 통해 24개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했으며, 주민센터, 문화센터, 게스트하우스, 홍보관, 창업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가짐
- 대부분 사업이 종료된 후 본격적인 자립운영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조직의 역량을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

● 주민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필요성

- 전국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된 이후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종시에서도 적합한 운영자 선정,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 미흡 등의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세종시에 조성된 24개의 시설이 본래의 목적(공공성, 지속성, 자립성)을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평가함으로써 주체들의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고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시설 운영·관리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1] 세종시 24개 주민공동이용시설 현황



II. 현행 시설 운영·관리체계의 한계

● 현재 세종시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 2024년 8월 현재, 소관이 이전된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세종시 도농정책기획과에서 각 시설의 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지원,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운영실태조사는 현장조사와 운영주체 인터뷰를 통해 시설의 현안과 운영 쟁점을 도출하며, 개략적인 양식을 활용하고 있음

●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필요

-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 지표 또는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매년 시설의 이력을 관리하기 어렵고, 활성화 또는 저조의 이유를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운영실태의 결과는 내년 운영계획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세밀한 로드맵을 시설별로 구축하는데도 현재 체계로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관련 데이터를 지속해서 축적하고, 이를 통해 현재 문제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III. 세종형 사후관리 지표 설정²⁾

● 세종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지표

- 세종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지표는 최종적으로 3개 영역(시설 현황 및 관리, 운영조직, 지속가능성), 17개 지표로 설정했으며, 17개 지표는 세부 지표를 포함하며, 시설의 유형에 따라 공통지표와 선택지표로 구분하였음. 선택지표는 공간별 수익성, 홍보, 입주기업, 수익배분 등으로 비수익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음
- 시설현황 및 관리 영역 중 시설현황 부분에서는 시설의 기능과 공간 활용현황, 수익성, 행재정지원 등을 포함하고, 시설관리 부분에서는 유지관리상태, 관리비용, 시설 관리규정 등의 사항을 점검함
- 운영조직 영역에서는 운영방식과 조직 운영으로 구분하여 운영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조직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점검함
- 마지막 지속가능성 영역에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시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운영 애로사항,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을 도출함

1) 이 글은 2024년 수행한 정책과제 <세종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지표개발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기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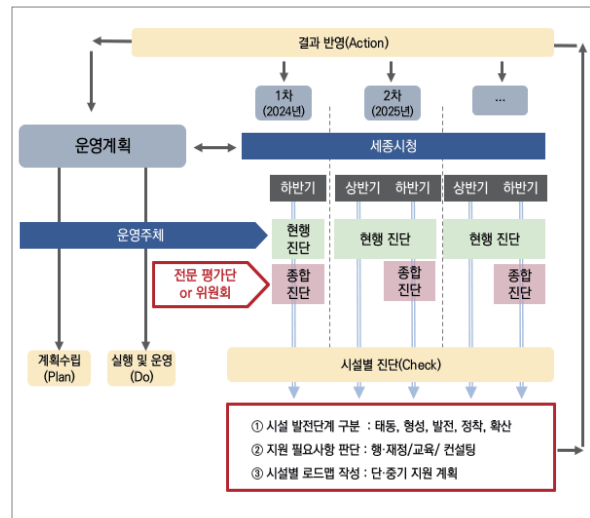
2) 전국에 설립된 광역·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중 37개를 대상으로 1차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하였고, 각 지역에 조성된 시설 사후관리에 대해 서면 자문 의향이 있는 18개 센터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적절성 조사를 실시함. 최종 12개 회수하였음

세종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표 1] 세종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지표 종합

영역	지표	공통 ● 선택 ○
① 시설 현황 및 관리	시설현황	공간별 기능 및 활용 ●
		공간별 수익성 ○
		시설·프로그램 홍보 ○
		행·재정적 지원 ●
		유관사업 연계 ●
		임주기업 ○
	시설관리	유지·관리 상태 ●
		관리비용 ●
		규정 마련 및 준수 여부 ●
		●
② 운영조직	운영방식	관리방식 ●
		운영주체 ●
	조직운영	운영위원회 및 대표성 ●
		투명성 및 공정성 ●
		수익배분 ○
		거버넌스 ●
③ 지속가능성	이용자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및 기대도 ●
	운영자인터뷰	시설 운영 불편 및 필요 지원 ●

[그림 2] 주민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체계 및 흐름



IV. 세종형 사후관리 체계 마련

1) 사후관리 주체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세종시청 도농정책기획과가 주체가 되고,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사후관리 방법 및 주기

- 현행진단(연 2회) + 종합진단(연 1회)
 - 17개의 지표를 토대로 사후관리 진단표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현행진단과 종합진단으로 구분하여 각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실행진단은 각 시설의 운영과 관리 현황의 이력을 관리하고 추적하는 목적으로 상·하반기 1회씩, 1년에 2회 시행함. 종합진단은 이용자 만족도, 운영주체 인터뷰 등 전문적이고 정성적 점검을 위한 것으로, 1년 1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평가단 구성
 - 세종시 담당부서·세종시 의회·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관련 전문가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평가단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시설의 운영 개선 및 후원, 타 시설간의 협력, 사후관리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진단 및 환류
 - 계획(Plan)→실행(Do)→진단(Check)→결과반영(Action) 등의 순환 체계로 운영하여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높임. 시설을 운영하고 활성화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 등을 확인하여 수정·보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종합진단결과 설정

- 지역공동체 형성(성장)단계인 태동기, 형성기, 발전기, 정착기, 확산기 등 5단계로 설정하여 평가함
- 형성(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체계와 이를 종합하는 단·중기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태동기와 형성기는 사업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다양한 컨설팅과 지원을 많이 받는 시기임
- 하지만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할 때는 대부분 발전기로 들어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수단이 필요함
- 좀 더 성숙한 단계에서는 지역외부 전문가와 연계를 하거나 사업고도화를 위한 마케팅, 지역 외부자원과의 활용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임
- 모니터링 결과를 지역에 공개하여 주민참여에 기반한 시설의 운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V. 정책제언

4가지 정책 제언

- 세종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현재보다 좀 더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4가지 정책을 제언하였음
 - 주민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근거 조례제정
 - 사후관리 전담팀 신설(전문평가단)
 -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패널티 적용
 - 중간지원조직 역할 재정립



I. 논의 배경

● 지역특화 가공식품

- 농수산물의 생산과 이와 연결된 전후방산업 부문들로 가공식품, 향토산업, 농촌산업 등과 같이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를 의미함. 이는 지역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자임과 동시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내생적 발전을 도모함

● 농촌지역 경쟁력 제고 필요

-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농가인구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구당 농가소득의 감소 및 시장개방 속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 2000년 이후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경쟁 요소는 지역성(Glocalizaion)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음. 2000년 시장개방화 이후 농업·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별로 농촌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었음
- 국내 농식품은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의 영향으로 농식품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 세종시가 향후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특화자원인 복숭아를 활용한 전문화된 농식품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임

II. 농식품산업 여건분석²⁾

● 농식품산업 개황

- 2022년 기준 국내 농식품산업 출하액은 129.8조 원으로 연평균 12.3%의 높은 성장을 보였음. 세종시는 2022년 1.3조 원으로 2020년 대비 연평균 9.1%의 성장하였음
- 2022년 기준 국내 농식품기업 사업체 수는 74,505개 사업체로 연평균 1.7% 증가하였으며, 서울과 대구,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업체 수는 증가하였음. 세종시는 427개 사업체로 20년 대비 연평균 6.1%의 성장을 보였음
- 세종시 농식품산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의 비중이 88.1%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의 비중 90.5%보다 2.4% 낮음

●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 국내 농식품의 원재료 사용 현황은 식품에 들어가는 원료의 수입산 비중이 68.3%이며, 국내산 비중이 31.7%임. 복숭아 식품의 수입산 비중이 80.1%로 큰 비중을 차지함
- 국내 식품의 원료조달 경로를 살펴보면 산지직구매, 중간도매·벤더업체, 원료제조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종시 농식품산업 경쟁력 진단

- 세종시 지역 농식품산업 특화도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입지계수(LQ)를 이용하여 특화도(22)를 살펴봄. 출하액(2,293), 종사자(1,402), 사업체(0.967)로 주요 지표 중 출하액, 종사자 수 기준 입지계수가 1을 상회하여 전문화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세종시 농식품산업의 집적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클러스터 지수(C)를 살펴보았으며, 세종시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수(22)는 1.346으로 나타나, 농식품산업 클러스터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 산업집적 수준은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 세종시 농식품산업 SWOT분석

[그림 1] 세종시 농식품산업 SWOT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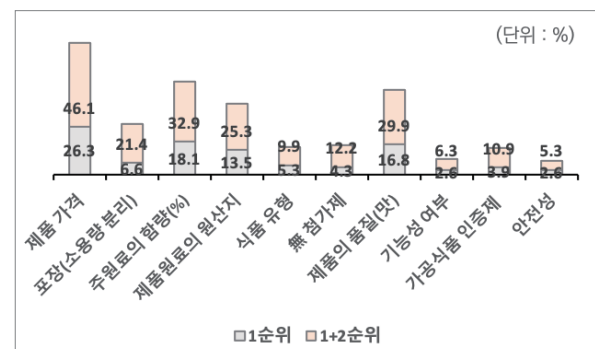


III. 지역특화 가공식품 소비자 수요조사³⁾

● 세종시 지역특산물 및 지역특화 가공식품 구매유형

- 세종시 대표 특산품에 있어서 1순위로 복숭아가 5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배, 포도 순. 지역특화 가공식품 구입 시 고려기준으로 품질의 우수성 28.3%, 합리적 가격이 27.3%로 나타남

[그림 2] 복숭아 가공식품 구매요소



1) 이 글은 2024년 수행 중인 정책과제 <세종시 농식품산업의 현황과 과제 : 복숭아 산업을 중심으로>에 기반하고 있음

2), 3) 자세한 분석 관련 과정과 결과는 본 보고서 참조

세종시 지역특화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 : 복숭아 산업을 중심으로

● 복숭아 가공식품 수요조사

- 복숭아 가공식품 선호식품에 있어 간편식이 27.3%, 차류가 13.8%, 과일채소가공품이 11.8% 순으로 나타남. 복숭아 가공식품 구매요소는 가격이 26.3%, 주원료의 함량(%)이 18.1%, 제품의 품질 16.8% 순으로 나타남

- 지역특화 가공식품 육성을 위해 지역농산물 및 향토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소재의 원료 확보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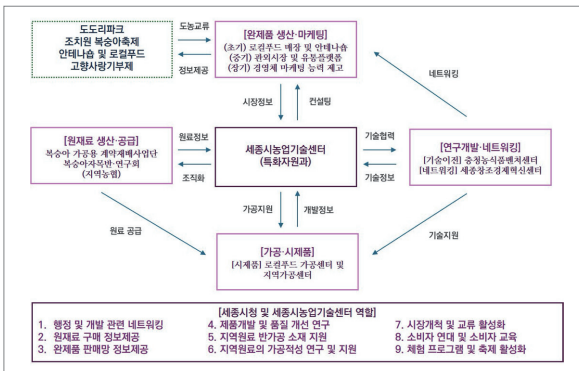
IV. 정책제언과 과제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특화 가공식품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코자 함

[그림 3] 단계별 지역특화 가공식품 추진계획

단계	초기	중기	장기
원료수급 및 소재산업	• 복숭아 조직화 • 연구회 조직 • 가공용 계약재배	• 가공적성 소재 개발 • 복숭아 생산성 제고	• 원료수급 플랫폼(농가↔기업) • 미래 식품소재 개발
특화상품 및 기술이전	• 상품개발 컨설팅 • 민간 및 공공 기술이전	• 시장조사 • 시제품 개발 지원	• 과학기술 기반 상품개발 • 윤디맨드 상품개발
인재육성 및 신규창업	• 전문인력 프로그램 • 아이디어 구체화	•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 사업화 지원	• 스케일업 프로그램 • 역량강화 고도화(가공, 판매)
판로확대 및 소비연대	• 로컬푸드(상상장터) • 인테나눔 • 도도리파크 • 조치원 복숭아 축제 • 고향사랑기부제	• 소비자 교육 • 브랜딩 • 스토리텔링	• 마케팅 능력 제고 • 디지털 유통 플랫폼 • 도농상생 협력

[그림 4] 복숭아 가공식품 활성화 모식도



● 원료수급 및 소재산업

- 농식품산업은 농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수행하며 농업과 지역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줌. 식품소재산업의 발전은 고도화의 기반이 되면서 후방산업과 연계하여 소비자와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있던 농업의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지역특화 가공식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한 계약재배가 필요
- 식품소재산업은 질병예방, 질병치료, 건강분야의 영역이 커지면서 기능성 소재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음

● 특화상품 및 기술이전

- 세종시 복숭아 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업생산물이나 농촌자원을 활용한 생산활동 지원에 한정되었으나, 농촌지역의 산업체계(industrial system) 구축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
- 산업의 양적 규모의 확대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며,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로의 육성이 필요
- 기술이전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지역 농식품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해당 분야에서 경쟁하게 되고 신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의 등장도 촉진할 것임

[그림 5] 세종시 복숭아 가공식품 우수사례



● 인재육성 및 신규창업

- 창의적인 인재 육성은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기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화를 다지는 방안이 있으며, 식품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의 양성도 중요한 과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맞춤형 전문인력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 농식품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창업 생태계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모색하고 농식품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모색이 필요

● 판로확대 및 소비연대

- 지역특화 가공식품기업은 전문 마케팅 채널 및 대형 유통채널 등의 부족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유통채널이 다변화 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지역 농식품기업이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지역특화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소비연대 프로그램이 필요. 도도리파크, 조치원 복숭아 축제 등과 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 필요
- 과거에는 가공식품 생산에 머물렀으나 소비자의 요구도가 다변화 됨에 따라 지역특화 가공식품과 관광·체험을 연계한 차별화된 소비연대 프로그램 개발 필요



I. 세종의 중심에 놓인 공원

● 세종호수공원

- 공원(公園)은 영어로 흔히 Park라고 하지만 실은 그 앞에 공공을 뜻하는 Public이 붙어야 함. 공공을 위한 정원이 곧 공원임
-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인당 공원면적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계획 신도시이기 때문임. 세종시는 탈산업사회 이후 만들어진 도시인 만큼 도시 안의 그린인프라(Green Infra), 즉 공공의 정원인 공원을 가장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 계획했음. 그렇게 우리 도시의 한가운데 큰 규모의 공원²⁾이 들어있음

● 대상지 설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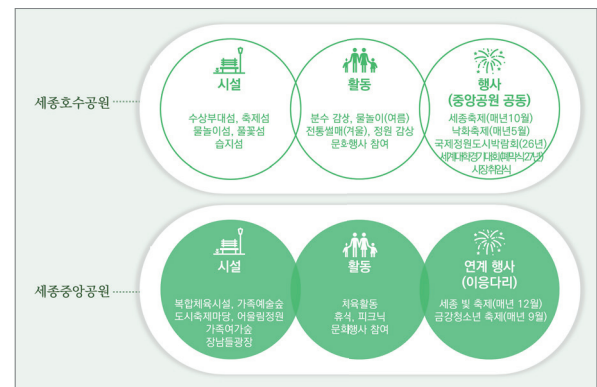
- 2007년 국제설계공모를 거쳤으며, 25개국 92개 작품이 출품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음
- 당선작은 조경설계 해인(노선주)의 '오래된 미래'임
- 이후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인 공개구리 발견으로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십여년간 여러차례 설계가 변경되어 조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이 쏠렸음

● 세종호수공원 조성

- 조성 또한 쉽지 않게 진행되었다. 연기를 반복하며 2013년 세종호수공원 완공, 2020년 세종중앙공원 1단계 완공 이후, 2027년 2단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개장된 호수공원과 중앙공원(1단계)는 세종시에서 운영해오다가 2024년부터 세종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여러 행사가 연중 열리고 있어 단연 이곳은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이자 장소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음

[그림 1] 공원의 주요 시설과 활동



III. 시민이 바라는 공원

- 필자는 연간 350만이 찾는 세종의 랜드마크인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해보았음

● 공원 활성화 설문

- 설문은 세종시설관리공단의 협조를 통해 세종시티앱에서 온라인 설문을 하였으며,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였음. 설문조사 결과 총 592명이 참여하였음

II. 시민에게 주어진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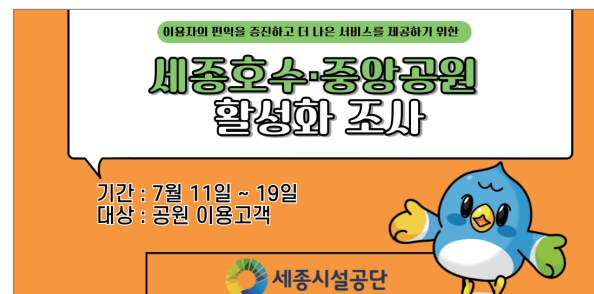
● 호수공원·중앙공원 이용자 통계

-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이 국내 이동통신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호수공원·중앙공원 이용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이용객은 약 350만명으로 추산됨
- 이중 외지인이 약 140만명으로, 우리 지역의 명소임에 틀림없음

● 세종시의 랜드마크 세종호수공원

- 이곳은 세종시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행사를 개최하는 첫 번째 장소임
-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폐막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매년 10월 세종축제, 매년 5월 낙화축제가 열리고 있음. 인근의 이음다리와 금강에서는 매년 12월 세종 빛 축제, 매년 9월 금강 청소년 축제가 열릴 때 연계행사가 진행됨

[그림 2] 세종시티앱 설문조사 안내



1) 이 글은 2024년 수행한 정책과제 <세종호수공원·중앙공원 중장기 운영 방안>에 기반하고 있음

2) 세종호수공원 면적: 697,246㎡ (수공간 322,800㎡), 세종중앙공원 면적: (1단계) 525,379㎡, (2단계) 868,892㎡

3) 분량상 1순위 응답만 나열하였음

[표 1] 설문 문항

질문	답변 유형
방문의 주 목적	객관식, 복수선택
가장 좋아하거나 오래 머무는 공간	객관식
불편을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공간	객관식, 복수선택
활력이 있다고 느끼는가	객관식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객관식
쾌적하다고 느끼는가	객관식
접근성이 좋다고 느끼는가	객관식
지역의 중심적 기능(상징, 결합)을 제공 하는가	객관식
이 공원에서 가장 좋은 점	주관식
이 공원에 개선이 필요한 점	주관식

● 공원 활성화 응답

- 시민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음³⁾
 - 방문의 주 목적은 휴식, 산책이 45.6%로 가장 높았음
 - 공원에서 가장 좋아하거나 오래 머무는 '공간'은 수변시설임(38.3%)
 - 공원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녹지공간(그늘)이라고 답했음
 - 공원의 활력, 안전, 쾌적, 접근성, 지역의 중심적 기능은 10점 만점의 점수 척도로 평가하였음
 - 활력에 대한 평가는 평균 점수 6.6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음
 -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평균 7.7점이 나왔음
 - 쾌적성 점수는 7.6점이 나왔음
 - 접근성 점수는 평균 6.8점이 나왔음
 - 지역의 중심적 기능(상징, 결합)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은 평균점수 6.8이 나왔음
 - 공원의 좋은 점에 대한 서술식 답변에서 상위 빈도를 차지하는 단어는 '산책', '호수', '휴식', '접근성'으로 나타남. 상위 빈도의 단어를 유형화 해보면, '활동'으로서 산책, 휴식, 아이들과 가족과의 활동, 운동, 행사를 만족해하고 있음. '공간'으로 호수, 휴식, 그늘, 넓은 공간을,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 접근성, 쾌적성을 만족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원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관식 답변에서 상위 빈도를 차지하는 단어는 '그늘(그늘막, 나무)'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음.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매점, 편의점, 카페)', '화장실', '휴식공간', '주차공간(주차장)', '대중교통' 등 시설에 대한 확충 요구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 공원의 좋은 점에 대한 응답 (워드 클라우드)



[그림 4]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응답 (워드 클라우드)



IV.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공원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한 공원의 운영과 관리 방향

- 첫째, 공원의 활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동적인 활동공간, 이동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함
- 둘째, 공원의 시설관리 측면에서 그늘, 편의시설, 접근성을 보완해야 함
- 셋째, 산책 이외에도 공원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활동성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공원을 함께 만들어갈 시민의 참여를 강화해야 함

<https://www.dsi.re.kr>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소담동)

Tel. (044) 550-3500 Fax. (044) 555-3599

발행인. 김영진 편집인. 신가원 등록번호. 대전유성, 바00015